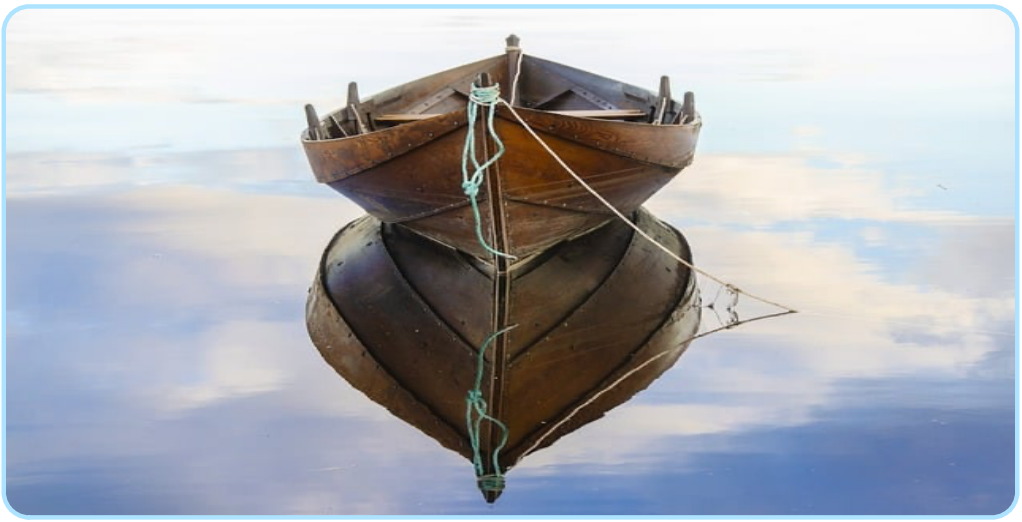
제176호 - 창립 2020.6.28

길목교회

THEWAY.NEWS

주후 2023.11.19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유튜브&카카오채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37 노블리제빌딩
406호 더불어섬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이메일

gilmokchurch@gmail.com

사역자

담임목사 : 이길주
교육목사 : 권세진
전도사 : 전정민
전도사 : 황예찬
음악사역 :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 전정민
가야금 : 김고은
해금 : 이건명
베이스 : 장 천
피아노 : 정지혜
기타 : 황예찬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뼛 속 깊이 그리스도인

세상 철학과 자신의 감각보다 더 우선하는 건 성경,
익숙히 알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성경공부 및 주중 세미나] 주일 오후 2시 및 주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받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바쁜 현대인의 삶으로

건물 안에서만 고백하고 활동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치열한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합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신앙, 성경에 대해 궁금한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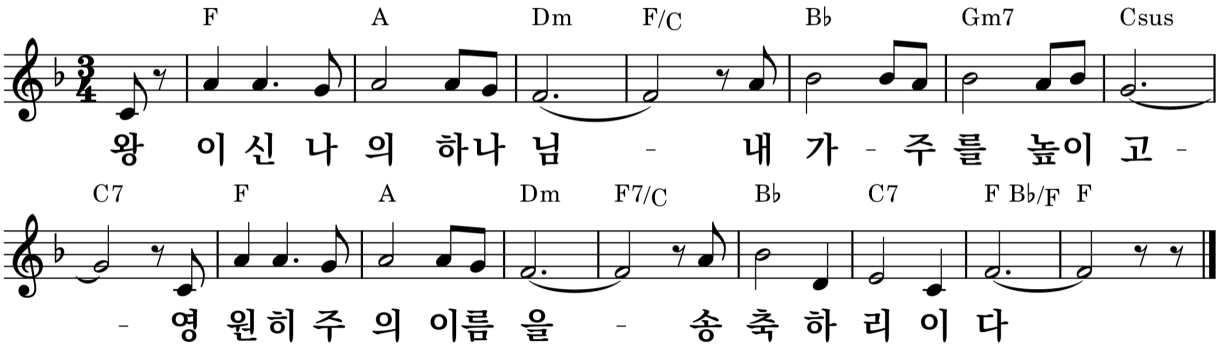
주일예배

오전10:30 커피타임으로 시작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 **인도자**

입례송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다같이**



성시 교독 ····· **〈빌립보서 4장〉** ····· **다같이**

(인도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인도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성도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인도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도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성도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인도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성도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성도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참회 기도 ····· **〈나,이웃,교회,나라,세상〉** ····· **다같이**

사죄의 확신 ····· **다같이**

(인도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 **찬양팀과 함께**

감사의 고백 ·····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말씀과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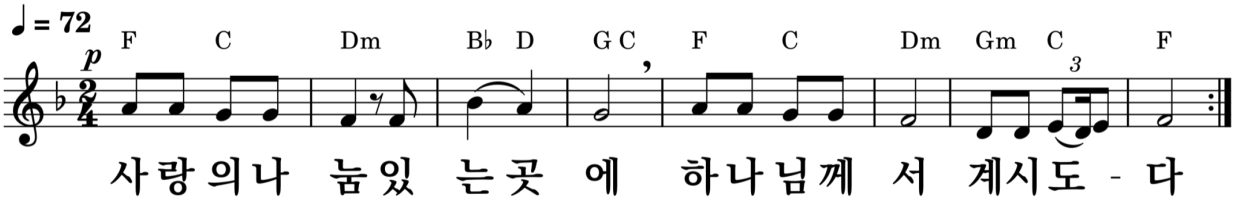
말씀 교독 ····· **〈마태복음 3:1-17〉** ····· **다같이**

말씀 듣기와 묵상 ····· **다같이**

말씀 권면 ····· **이길주 목사**

묵상 기도 ····· **다같이**

응답의 찬양 ····· **다같이**



2번 함께 부릅니다

말씀 기도 ····· **다같이**

응답과 축복

✝**감사 찬양** ····· **〈거룩하신 하나님〉** ····· **다같이**

✝**결단과 축복** ····· **다같이**

(인도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주의 자녀 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다같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감사노트

감사한 일 3가지 이상을 기록하세요

성경말씀 메시지성경

마태복음 3: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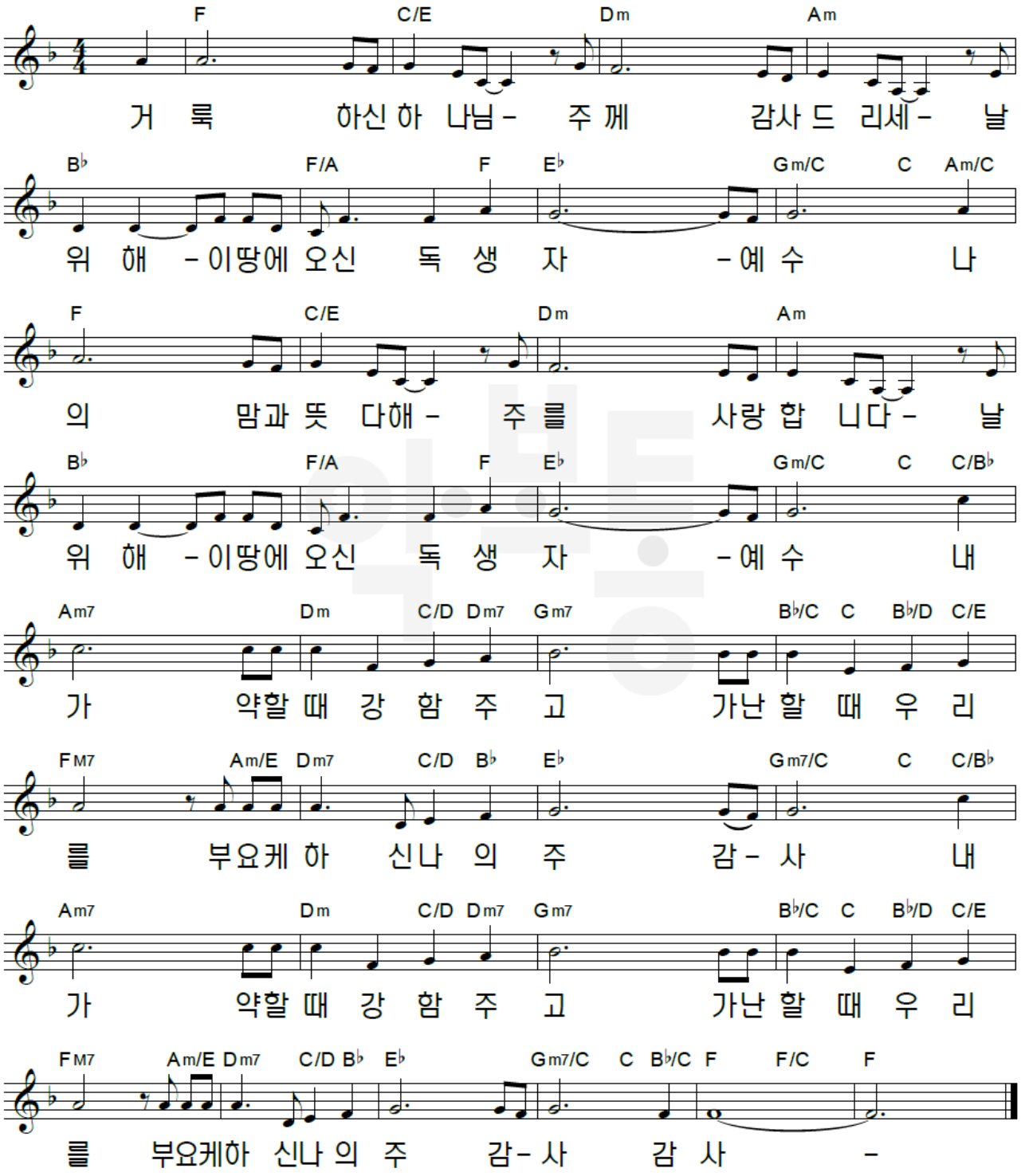
1-2 예수께서 갈릴리에 살고 계실 때, "세례자"라 하는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는 주변 광야만큼이나 간결하고 꾸밈이 없었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3 요한과 그의 메시지는 이사야의 예언으로 권위가 인정되었다. 광야에 울리는 천둥소리다!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 준비하여라! 길을 내어라. 곧고 평탄한 길을 내어라! 4-6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리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살았다. 그가 하는 일을 듣고 보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지역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죄를 고백하러 온 사람들은, 그곳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기로 결단했다. 7-10 세례가 점차 인기를 얻다 보니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체험하러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를 안 요한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 삶이다. 너희 삶은 푸르게 꽃피고 있느냐? 말라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11-12 내가 이 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의 옛 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을, 너희 안에 불을, 너희 안에 성령을 발화시켜,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은 집을 깨끗이 하실 것이다. 너희 삶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참된 것은 모두 하나님 앞 제자리에 두시고, 거짓된 것은 모두 끄집어내어 쓰레기와 함께 태워 버리실 것이다." 13-14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오셔서 모습을 나타내셨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요한이 말렸다.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접니다!" 15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호하셨다. "내 말대로 하여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役事)가 바로 지금, 이 세례 속에서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대로 했다. 16-17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셨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기쁨이다."

마태복음 3:1-17

1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
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4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5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6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
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1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
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3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
니 14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로 오시나이까 1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 예
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
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
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Words and Music by Henry Smith



2023.11.14. 화요일 국민일보 미션 1면 기사

The Mission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33

신천지 수료식 열린 대구스타디움 가보니…
목회자 1명만 행사 규탄하며 분투
지역 교계 연합과 공동 대응 아쉬워
35

"시련마저 반전 드라마로 쓰시는 하나님"
만능 예능인 조혜련 집사의 고백
40

더 미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상담과 치유의 전문대학원
치유상담 전문대학원
2024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 2023.11.10(금) ~ 11.23(목)
전 화 : 02)599-2400, 2466

"헬스장·미용실이 선교지" 세상 속으로 파고든 재능목회 뜬다

JD HUB, 목회 새 패러다임 포럼

황인태 소울브릿지교회 전도사가 지난 2월 경기도 안산의 한 헬스장에서 헬스 회원의 운동 자세를 코칭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미용사인 장현주(왼쪽) 길목교회 집사와 미용실 고객의 모습. 황 전도사, 장 집사 제공

2020년 스물다섯의 청년은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다 몸이 망가졌다. 장시간 의자에 앉아 생활하던 그는 목디스크 초기와 어깨와 등이 안쪽으로 말리는 '라운드 숄더'를 진단받았다. 당시 의사의 권고로 운동을 시작했던 그는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헬스'가 재미있고 잘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을 비롯해 총 11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듬해 그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다니던 헬스장 골목에서 끽연을 하는 고등학생 열댓 명을 목격했다. 헬스장을 오가며 낯익은 얼굴들이었다. 혼계라도 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같이 운동하자"고 권유했다. 같이 땀 흘리고 샤워하며 교제를 이어간 지 1년째. 이들 가운데 절반은 복음을 받아들였다.

재능목회, 교회 안팎 잇는 가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황인태(28) 소울브릿지교회 전도사다. 13일 서울 성동구 서울드림교회 비전센터에서 만난 그는 "운동을 전문적으로 가르친다면 헬스장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만나는 기회의 장이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만의 '재능목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재능목회 사역단체인 JD HUB(Jesus&Disciples HUB·대표 이길주 목사)가 'N잡러 사역자들의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주제로 마련한 포럼에서다.

재능목회는 생계에 초점을 둔 '이중직 목회'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연기를 비롯해 광고홍보와 미용 등 개인적인 재능과 전문성을 교회 사역에 접목한 사역 모델로 볼 수 있다. 목회자가 전문 영역 내에서 사역을 수행하며 그 경험을 교회 안팎에서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에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주제 강연자로 나선 이길주(길목교회) 목사는 "재능목회는 생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으로 선교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사회 속에서 사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헬스장, 사람 만나는 기회의 장"
트레이너, 같이 운동하며 전도
평신도 미용실 주인도 한몫
머리 손질중 고민 들어주니 성도로

"교회로 사람 끌어모으는게 아닌
사회 속에서 각자 재능 통해 사역"
생계 목적인 이중직과 다소 달라

평신도에게도 열린 사역

재능목회는 평신도 사역으로도 연결된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장현주(48) 길목교회 집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2020년부터 미용기술을 가지고 선교지가 아닌 자신의 미용실로 향했다. 머리 손질을 위해 2시간 동안 앉아 있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끙끙 앓고 있는 고민을 들어줬다. 수개월 교제를 나눈 손님들은 미용실 인근 교회 성도가 됐다.

이 같은 사례를 제시한 이 목사는 "일요일을 제외한 엿새 동안 선교지인 사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비신자들과 교류하고 직접 선교한다면 '교회 안 신자'로 그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소사회 틈새목회의 가능성

출산율 급감,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 한국사회가 처한 상황은 이른바 '축소사회'로 빠르게 향하게 만든다. 이 목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재능목회는 축소사회 곳곳을 보듬을 수 있는 틈새 사역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교회와 관련해 늘 거론됐던 문제는 교인 수였다. 건물교회의 중심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세상 속에서 선교 목적을 품고 흩어져 나아가야 할 때다.(행 8:4)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하는 재능목회는 복음 전파를 땅끝까지 가능하게 하는 사역"이라고 전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www.babsang.or.kr
1577-9044
연탄 1장 = 850원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세요!
후원계좌 | 기업 002-934-4933(연탄은행)

교회안내

하나님나라를 위한 길목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20 (10:30 커피타임시작)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2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0:30~12:30
주일오후 프로그램	주일 오후 1:30~3:3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전도사	황예찬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황예찬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사역 헌금 계좌]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의 추구가치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

공동체소식

주님 나라를 위한 행복한 공동체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길목교회 남선교회 모임 감사

지난 수요일 박사무엘성도님이 계신 서울대학교로 길목교회 남선교들이 찾아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매번 바쁜 시간과 물질로 섬겨주신 남선교회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다음 모임은 장신대입니다. 장신대에서 전정민 전도사님,황예찬 전도사님,이건명 집사님 세 분을 모두 함께 만나는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JDHUB 포럼 감사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로 행사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 살펴보고 사역자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함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국민일보 미션 1면 기사로도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에 장현주 집사님의 사역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길목교회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11.26 황예찬 전도사 사임

우리 교회에서 작년 5.22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황예찬 전도사님이 11.26 다음주를 마지막으로 사임합니다.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전도사님을 위해 중보해주시고 한주간의 남은 시간동안 아쉬움과 송별의 정을 나눠주세요 ^^

예배 권면 일정

11.26 - 황예찬 전도사 파송 권면

12.3 - 전정민 전도사 권면

12.10 - 김명철 목사 권면